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inim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배준현* / Bae, Jun-Hyun

권성진** / Kwon, Sung-Jin

Abstract

Since the late 19th Century, modern architecture of definite figure and form shared similar concepts on space and fom with the abstract art, pursuing the geometric purity and the abstraction. So the reductive approach had been taken in modern architecture as well as on modern art. The 1960' minimal art had experimented an extreme reduction with the cubic forms and the plane canvases, embodying so called minimal-art content, it was just another version of modernism art interpreted by the extreme reduction. The reduction is a characteristics of modernism adopted in every art field, including architecture. Not from the apparent, but from the essential quality of architectural form, figure and space resulting from the reductive approach, a building in this trend should be judged and appreciated.

In many aspects,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been shown the characteristics of Minimal Architecture. With these points of view,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 above contents through the form and space.

키워드 : Minimalism, 즉물성, 구축성, 투명성, 전통건축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60년대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이 기존의 과도한 표현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90년대 현대건축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건축적 경향의 한 부류인 미니멀 건축 또한 이전의 과도한 양식적 표현에 대한 반발로 그 세력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90년내에 그 절정을 이루었던 해체주의 건축은 과도한 표현 위주의 양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경제적 측면과 건축 후 관리 등 제반문제점 등이 표출되어 그 세력이 감소되고 있다. 건축양식사적인 측면에서 이전 단계의 양식적 반발로 새로운 양식의 탄생이 도출되는 과정을 볼 때 극도의 추상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의 확산은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니멀건축에 대한 연구는 90년중반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들에서 보여지는 그

정의와 특성들은 아직 결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추후의 연구과정을 통해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총괄분석하여 그 특성들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한국전통건축의 새로운 시각을 구축하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국전통건축은 공간의 연출에 있어서 비의도적인 특성을 내재하는 비움, 그리고 비움에 따라 형성되는 내/외부, 내부/내부, 외부/외부 공간의 상호확장, 면의 상하 좌우 이동에 따른 공간의 투명성등 다양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또한 재료의 쓰임에 있어서, 목조 가구식의 기본적인 구조방식을 재료의 특성에 따라 취하며, 이에 따른 자연스런 형태의 도출을 그 특성으로 한다.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따른 이러한 형태도출과정에서 그 형태는 공간의 의미를 내포하는 볼륨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건축의 일반적인 특성들 가운데 일부가 미니멀 건축의 일반적 특성들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한국전통건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우선, 미니멀 건축의 특성을 형태적/공간적 특성으로 나누어

* 정희원, 동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정희원, 서라벌대학 실내건축과 조교수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고찰되는 특성들은 광의의 고찰을 지양하며, 명확히 미니멀 건축으로 분류되는 작가작품을 통한 보편적 특성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전통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적 특성에 대한 고찰은 앞서 고찰된 미니멀 건축의 공간적/형태적 특성들을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이 편협된 주관적 사고에 치우쳐 보편적 객관성을 지양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며, 2장에서는 미니멀 건축의 일반적 특성을 공간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주로 문헌 중심의 고찰이 이루어지는데 사적인 고찰은 지양하며 기존문헌들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성들을 분석하여 3장 특성분석의 준거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한국전통건축의 미니멀리즘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4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과제의 방향 설정을 포함한다.

2. 미니멀 건축의 공간적/형태적 특성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¹⁾은 그 조형적 특성으로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 순수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특성들은 건축에 있어서도 대체로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건축은 공간을 다루는 3차원 조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개념이 반영되었다는 특성을 들 수 있다. 미니멀리즘 미술의 특성과 공간개

1)회화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a.단순성 :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며, 이미지와 조형요소를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구조로 환원시킨다. 따라서, 감상자로 하여금 형태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부분이 아닌 전체를 강조한다. 원형이나 입방체의 사용과 같은 규격의 크기, 단색의 사용 등으로 단순함을 강조한다.

b.명료성 :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회화를 테두리(크기나 모양), 캔버스, 물감의 유동적인 농도, 오브제로서 회화의 가장자리를 명확하게 하는 선 등에 의하여 정의하고 이는 조형적 특성이 명료성을 시사한다. 단단한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색채나 소재에 의해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순수한 색조 대비와 비교적 개성없는 색채, 알루미늄, 강철등의 공업재료의 사용등은 명료성을 획득한다.

c.반복성 : 어떤 물체간의 계층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비관계적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반복성을 가진다.

d.사물성 : '특수 오브제'의 명칭과 같이 전통적 회화나 조각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오브제를 말하며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평면에서 환영을 제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중성적이며 대상을 표현하는 일에 무관한 오브제, 그자체를 제시한다.

e.순수성 : 본질적으로 이미지나 수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어 내는 원천적인 것에 관심을 표명하고 본질을 추구하려는 순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대상의 본연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단일한 색채, 단순한 형태, 오브제로서의 성격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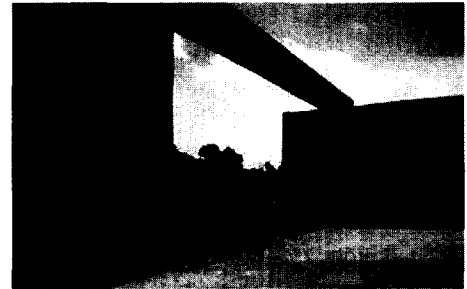
Samsung Fashion Institute

http://www.sfi.co.kr/Virtual_Libraries/ArtHistory/minimalism/nmin2.htm, 1997

념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으로는, 공간에 있어서 확장, 투명성 그리고 비움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상호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특성들을 나타낸다.

2.1. 공간적 특성

(1) 확장 - in / out



<그림 1> Egerstrom House, Luis Barragan, 1968
이 주택에서의 공간적 확장은 두 벽의 중첩과, 확장을 통해 공간의 연속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니멀 건축의 공간적 특성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속된 공간의 표현을 말한다. 공간적 투명성 과 관련되어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소멸시켜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내외부공간의 역전된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내외부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상호역전된 공간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2) 투명성 - solid / void



<그림 2> Egerstrom House, Luis Barragan, 1968
Solid와 Void의 대비관계에 따른 공간의 시각적 연속성과 각 공간의 투명성을 표현한다.

건축에서 투명성이라는 단어는 즉물적으로, 커튼월에 의한 자유로운 구조, 경계에 대한 비가시화, 이상적인 사회의 반영 등에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풍부한 볼륨의 접합, 매스들의 접합에 대한 파괴, 선들의 소멸, 평면들의 중지, 광선과 시선의 자유로운 유입, 건축을 둘러싼 자연과 그 환경의 수용²⁾등으로 나타난다.

미니멀 건축의 공간적 특성인 투명성은 재료의 즉물성에 따른 솔리드와 보이드의 명백한 대비관계의 표현특성인데, 투명한 재료 즉, 유리의 사용으로 인한 형태적 투명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2)이정열, 유리의 집-투명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4호, 2000, p147

투명성을 추구하여 공간 상호간의 존재적 관계를 형성한다. 공간 상호간의 존재적 관계란 내부/내부³⁾, 내부/외부, 외부/외부 등의 관계를 말하며, 미니멀 건축에서 각 공간은 그 독립된 실체는 유지되며 시각의 조건에 따라 상호관입 혹은 중첩으로 표현된다.

(3) 비움 - Figure / Ground



<그림 3> Gaspar House, Campo Baeza, 1988
주체인 공간과 형태(비워진 공간과 경계를 이루는 벽) 이외에 제 3의 요소인 한 그루의 나무는 주체들의 상호관계에 의한 존재를 명확히 하며, 또한 그들을 배경으로 삼아 주체가 되는 오브제로 존재한다.

미니멀건축의 공간은 미술에서 보여지는 그 특성인 단순성, 순수성, 사물성 등을 추구하는데, 공간 그 자체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며 비워두는 경향을 보인다. 비워지는 공간의 경계를 보이드 혹은 솔리드로 처리하여 배경으로 삼으며, 공간은 그 배경에 의해 하나의 오브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간과 형태(즉물적 배경이 되는 면)가 상호 병존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공간의 존재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공간과 형태 이외의 제3의 요소인 단순한 오브제를 두어 이들 관계의 성립을 더욱 확고히 한다. 여기서 오브제는 그 자체의 물성만으로 인식되는 미술에서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는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이 주체의 표현을 위한 공간적 배경을 필요로 하는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2. 형태적 특성

미니멀 건축에서 보여주는 형태적 특성은 단순함을 표현하는 환원적 추상성, 재료의 솔직한 표현과 즉물적 표현성에 따르는 형태 그리고 총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구축적 볼륨 등이다.

(1) 환원적 추상성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이 보여주는 환원적 특성은 그 목적을 대상의 순수함과 대상의 존재론적 가치에 두며 단순입체 또는 단순 도형 등의 요소로 환원시키며 그 방법으로는 독립된 오브제 지향적 표현과 요소의 반복적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20세기 말 이후 회화의 추상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표현의 단순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니멀 건축의 배경으로서 환원적 경향⁴⁾은 로지에, 불레, 르두,

3)내부와 내부 공간 상호간의 존재적 관계를 '이쪽공간과 저쪽공간'의 복합공간의 성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상호간의 다변적 관입관계로 표현된다.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pp.183-184

4)이계순, 건축형태에 있어서 환원적 접근방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94,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p.51

듀랑 등의 계몽주의시기의 건축가와 데 스틸, 로스, 꼬르뷔제, 미스 등의 근대건축가 그리고 순수기하학적 환원의 경향을 보여주는 뉴욕 파이프, 구조주의적 환원의 경향을 보여주는 헤르만 헤르쯔베르그, 알도 로시를 중심으로 한 신헤리주의 건축가등에서 나타난다.

환원적 추상성의 예로서 칸의 방법론을 들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공간에 대한 단서를 피라미드에서 찾았다. 1951-1952년 사이의 세계문명발상지에 대한 답사를 통한 일련의 스케치들은 그의 미니멀리즘적 공간관의 형성⁵⁾을 보여준다.

(2) 즉물적 표현성⁶⁾

50년대 이후 추상표현주의의 과도한 표현에 대하여 미니멀 아트가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미니멀 건축은 70년대 이후 과도한 형태표현의 반작용으로 재료의 물리적 표현성 즉, 즉물성을 강조한다. 이는 형태의 물질적 특성 즉, 재료의 물성, 질감, 표현의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건물 표피에 대한 관심을 그 특성으로 한다.

미니멀 작품들은 건축재료의 특성을 공유하고, 표피의 재료와 질감, 표면, 구조적 개성, 반사, 색채, 형태, 무게와 같은 재료의 특성을 강조한다.⁷⁾



<그림 4> Galvez House, Campo Baeza, 1955, 벽의 재료에 따른 표피의 질감과 색채들은 바닥의 질감과 패턴, 그리고 나무의 물성과 더불어 강한 즉물적 표현을 이루고 있다.

미니멀리즘 건축이 찾고자 했던 매개적 최소성을 재료가 지니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상태인 물질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은 미니멀리즘 건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 물질은 재료가 축조 과정을 거쳐 하나의 건축물로 발전하기 이전의 상태인 본래의 물리성을 일컫는다. 미니멀리즘 건축은 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

5)1951년이 지나면서 칸의 피라미드스케치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첫째는, 피라미드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두 부분만으로 구성된 기본 기하형태로 단순화 되어 있다. 둘째는, 이렇게 분리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체험적 리얼리티로서의 3차원 미니멀리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임석재, 앞의 책, p.50

6)'즉물적 표현성'은 '물질(materiality)'의 수식적 표현으로,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되는 물질의 표상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물질은 '중립적(neutral)'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물질 내부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박영욱, 건축행위를 통한 '물질의 발현'에 관한 연구, 1996,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p.10

7)김상균, 현대건축의 미니멀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1998,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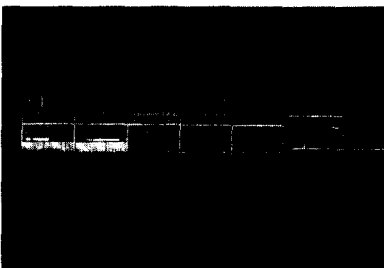
이의 최대공약수개념으로서 미니멀 이미지를 찾는 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미니멀 이미지는 최종결과물에 해당되는 형태에 있지 않고 그러한 형태를 있게 해주는 재료의 물성에 있다.



<그림 5> Naosima Art Museum, Tadao Ando 1992, 다다오의 건축은 콘크리트의 물성과 그 재료적 특성에 의한 구축성을 잘 보여준다.

콘크리트는 물성의 개념을 가장 잘 구현시켜 줄 수 있는 재료이다. 콘크리트의 이러한 가능성은 그 축조된 형식을 안 남기는 일체식 재료라는 점에서 기인하는데 노출된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추가조작이 필요없는 독립적 완결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미니멀리즘이 정의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⁸⁾ 이외에 즉물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 노출철골, 벽돌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료의 솔직성을 주된 조형원리로 표현하는 양식은 브루탈리즘, 하이테크건축등이 있다. 미니멀 건축 또한 이러한 즉물적 표현을 조형원리로 하고 있지만, 그 구축적 표현의 가치를 단순한 형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양식의 표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3) 구축적 볼륨



<그림 6> Steel House, 그로스/브래들리, 1997 철과 유리는 각각의 물성을 드러내면서 투명한 볼륨을 형성하고,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미니멀 건축에 있어서 구축적 볼륨은 재료의 즉물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재료의 구축방법과 관련된다. 벽돌의 조적에 의한 구축, 콘크리트의 일체 시공에 의한 구축, 철골의 접합 및 가구에 의한 구축등이 미니멀리즘적 표현성과 연관되어 하나의 형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축되는 형태는 가장 단순한 벽의 전형인 평평한 면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면들은 내부공간의 인지를 얻

두해 두어 투명한 재료의 물성과 각 면들의 결합방법의 노출과 더불어 매스가 아닌 볼륨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가장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되는 미니멀 건축의 구성요소는 면⁹⁾이다. 미니멀 건축의 근원을 근대건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근대 이전은 매스를 위한 면이었고 근대의 면은 볼륨을 위한 면이었다. 근대의 면은 볼륨을 위한 외피의 개념으로 이전의 그것과는 달리 견고하거나 장엄할 필요도 없었으며 두께감도 약해졌다.



<그림 7> National Capital of Bangladesh, Dhaka, 1962-83

노출콘크리트에 의한 구축적 볼륨은 칸의 피라미드에 대한 해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육중한 피라미드의 윤곽을 3차원 공간으로 발전시키면서 매스가 아닌 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체 즉, 볼륨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는 칸이 피라미드로부터 찾아낸 미니멀리즘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근대적 공간의 모습으로 구체화시켜 주는 최소한의 매개로 칸은 노출콘크리트와 빛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칸은 구축과정에 대한 솔직한 증거제시를 통해 체험적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미니멀리즘 공간관에 대한 기본개념을 확립할 수 있었다.¹⁰⁾

3.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적 특성 고찰

3.1. 미니멀 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전통건축 해석의 가능성

한국전통건축은 공간의 연출에 있어서 비의도적인 특성을 내재하는 비움, 또한 비움에 따라 형성되는 내/외부, 내부/내부, 외부/외부 공간의 상호확장, 면의 상하좌우 이동에 따른 공간의 투명성등 다양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또한 재료의 쓰임에 있어서, 목조 가구식의 기본적인 구조방식을 재료의 특성에 따라 취하며, 이에 따른 자연스런 형태의 도출을 그 특성으로 한다. 가구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따른 이러한 형태도출과정에서 그 형태는 공간의 의미를 내포하는 볼륨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적/형태적 특성들은 미니멀 건축에서 보여지는 특성들로 관련지어 고찰할 수 있다. 건축재료나 구조등

9) 볼륨과의 관계에 따른 면은 한정적 요소, 종속적 요소, 자립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오현주, 건축형태구성에 있어서 면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1997,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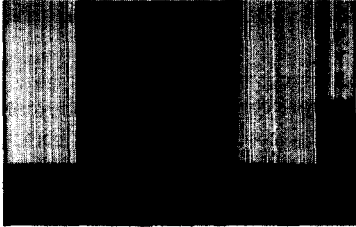
10) 임석재, 앞의 책, pp.50-51

8) 임석재, 앞의 책, 1999, pp.95-96

그 건축적 출발은 다르지만, 공간에 대한 사고와 재료의 표현성등 그 대표적인 특성들은 서로 유사한 점을 보인다.

3.2.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적 특성 고찰

(1) 공간적 특성 고찰



<그림 8> 연경당, 창덕궁
연속된 방과 대청, 문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공간
들이 서로 중첩되어 강한 연속성을 느끼게 한다.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중첩과 관입¹¹⁾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미니멀리즘 건축의 공간적 특성인 확장¹²⁾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확장의 개념은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주변환경을 포함한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의 공간개념은 마당과 자연등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관계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벽의 유무 혹은 개구부의 개폐여부에 따라 전개되는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관계는, 비어있지만 시각적 틀을 구성하는 중간영역¹²⁾의 투명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Solid와 Void의 대비관계에 의한 형태적 투명성과 Void된 면이 있음으로써 강조되는 형태적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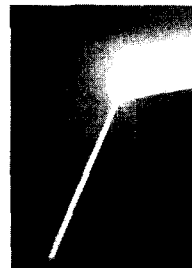
<그림 9> 관가정, 경주 양동마을
개방/폐쇄의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비어있는 내부공간, 벽
면의 프레임, 비어있는 외부공간, 자연적 오브제, 막혀있
는 담장, 자연등의 일련된 시각적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은 내/외부의 구분을 막론하고 비움의 원칙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비움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빈 공간에 내재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워진 공간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마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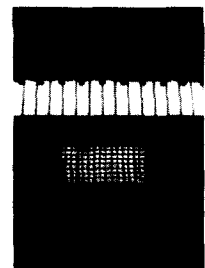


<그림 10> 독락당, 경주 양동마을
빛의 작용으로 그늘진 처마의 실루엣을 표현하고, 비어있는
유보공간이 오브제의 배경이 된다.

保坂陽一郎¹³⁾은 서양건축과 일본건축에서 보여지는 마당과 같은 이러한 공간을 어프로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보의 공간¹³⁾으로 정의하는데, 한국전통건축에서의 마당은 특정된 용도는 없지만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다용도의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워진 마당의 경계는 담장의 면 혹은 각 채의 면들로 구성되는데, 이 면들은 공간의 경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빈 공간에 존재하게 될 오브제의 배경이 되며, 시각적으로 중첩되어 지각된다. 내부공간에서의 비움은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 비움이 더욱 강조되는데, 이러한 빛의 연출¹⁴⁾은 미니멀리즘에서 동양적인 정적의 개념을 수용하려는 의지로 표현되어, 무채색의 백색빛을 방안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 하나의 공간을 정의¹⁵⁾해낸다.



<그림 11> NickKnight
House, DavidChipperfield,
1967-1989



<그림 12> 임청각,
경북 안동

미니멀리즘 건축에서 비워진 공간으로 스며드는 빛은 공간과 형태의 순수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구축성과 내/외부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그 자체의 조형성을 가지며 또한 구축적 표현을 강조하는 매개체로도 작용한다.

(2) 형태적 특성 고찰

미니멀리즘 건축에서 보여주는 형태적 특성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형태의 단순함을 표현하는 환원적 추상성, 재료의 솔직한 표현과 즉물적 표현성에 따르는 형태 그 리고 총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구축적 불림 등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재료와 그 구조방식의 차이로 인

11) 임석재, 우리 옛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p.307

12) 내외부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중간영역이라 함은 빗마루, 대청마루등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시각의 흐름을 구성하는 연속된 공간들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13) 保坂陽一郎, 이진민 역, 경계의 형태,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pp.96-102

14) 한국전통건축에서의 빛은 투과와 투영으로 연출된다. 이는 공간적 비움에 의해 강조된다. 빛의 투과에 의한 연출은 개구부의 창호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투영에 의한 연출은 창살, 처마, 기둥 등 외부와 면하는 매개체들의 그림자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출들은 정적인 공간에서의 동적인 시간적 흐름을 반영한 공간의 지각적 다면화를 표현한다.

15) 임석재, 앞의 책, 대원사, p.146

한 형태표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국전통건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림 13> 향단, 안중문, 양동마을
건축재료의 질감, 구조적 개성, 재료의 색채 등 즉물적 표현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니멀건축에서 보여지는 즉물적 표현성은 재료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표면의 재료와 질감, 표면, 구조적 개성, 색채등을 구축적으로 표현한다. 한국전통건축에서도 이와같은 표현성을 고찰할 수 있는데, 석재의 구축성과 표현성을 보여주는 기단부와 목구조의 구축성과 그 재질감의 표현성을 보여주는 벽체 그리고 지붕의 볼륨을 잘 표현해주는 상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각각의 구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재료의 색채는 그 즉물적 표현성을 더 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니멀 건축에서 보여지는 외관의 형태는 단순함을 추구하면서도 그 재료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구축성을 보여준다. 또한 건축 본래의 조형적 특성인 내부공간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볼륨의 표현을 그 특성으로 하는데, 한국 전통건축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잘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나타난다.



<그림 14> 팔오헌 증택,
경북 봉화 해저리 바래미마을

미니멀 건축의 구축적이고 즉물적인 의도로 표현되는 면적 특성은 한국전통건축에서 추상적인 벽면 구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 벽면 구성은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구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특성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림 15> 윤중고택
다양한 면으로 구성된 벽.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인방은 흰 회벽을 여러개로 나누면서 다양한 면을 구성하면서 그 구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구축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미니멀건축의 특성에 따른 한국전통건축의 표현양상

	미니멀 건축	한국 전통건축
공간적 특성	확장	중첩과 관입
	투명성	중간영역의 투명성
	비움	유보공간
형태적 특성	환원적 추상성	벽면구성의 재해석
	즉물적 표현성	노출된 기구재료의 표현성
	구축적 볼륨	내부공간의 존재 따른 볼륨인식

4. 결론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니멀 건축은 그 표현적 의도가 충분히 한국전통적인 조형의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재료의 사용과 표현이 즉물적이고 구축적인 점과 자연요소를 통한 공간/형태의 친밀한 관계성 확보, 그리고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감의 강조 등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전통건축과 미니멀 건축의 특성비교에 있어서 건축형태적인 측면은 다소 미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체형태에 있어서는 그 특성이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전통건축에서의 외관은 기단, 몸체 지붕의 고전적 3부구성을 취하지만, 미니멀리즘은 이를 배격하고 단순한 추상적 형태를 취한다.

한국전통건축이나 미니멀 건축에서 보여주는 확장, 투명성 그리고 비움 등의 공간적 특성이나 즉물적 표현성과 구축적 볼륨등의 형태적 특성은 제3의 요소인 자연을 매개체로 삼는다. 자연적 요소를 그 배경으로 하거나, 오브제로 처리하여 오히려 건축을 배경으로 처리하는 역전된 표현을 추구하여 그 공간과 형태구성의 특성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적인 내용은 한국전통건축의 해석에 있어서 더욱 폭넓은 방법과 범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계속될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석의 방법과 범위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2. 임석재, 우리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3. 권삼윤, 우리건축 특으로 본다, 대한교과서, 1999
4. 박영순 외7인, 한국전통주택의 실내공간, 우리옛집이야기, 열화당, 1999
5. 保坂陽一郎, 이진민 역, 경계의 형태,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6. Aurora Cuito, Minimalist interiors, Kliczkowski, 2000
7. David Batchelor, Minimalism, Cambridge Univ. Press, 1997
8. James Meyer, Minimalism, Phaidon, 2000
9. Francisco Asensio Cerver, The Architecture of Minimalism, Hearst Books International, 1997
10. Colin Rowe, Transparency, Birkhäuser, 1997
11. Samsung Fashion Institute, <http://www.sfi.co.kr>, 1997
12. Alvaro Siza, GA Document Extra 11
13. Barragan, The Complete Works, Thames and Hudson, 1996
14. Peter Testa, Alvaro Siza, Birkhäuser, 1996
15. Campo Baeza, Contemporary World Architects, Rockport, 1997
16. 이정열, 유리의 집 - 투명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4호, 2000
17. 이계순, 건축형태의 표현에 있어서 환원적 접근방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4
18. 김윤희, 1980년대 이후 건축에서의 Minimal 경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8
19. 오현주, 건축형태구성에 있어서 면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7
20. 김철균, 현대건축의 미니멀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8
21. 박영욱, 건축행위를 통한 '물성의 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22. 김창렬, 현대건축에 나타난 총첩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6
23. 김소희, 현대건축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6
24. 윤성훈, 현대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8
25. 고정석, 바라간 주거작품의 건축정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26. 이정욱, 현대건축의 텍토닉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8

<접수 : 2000. 10. 31>